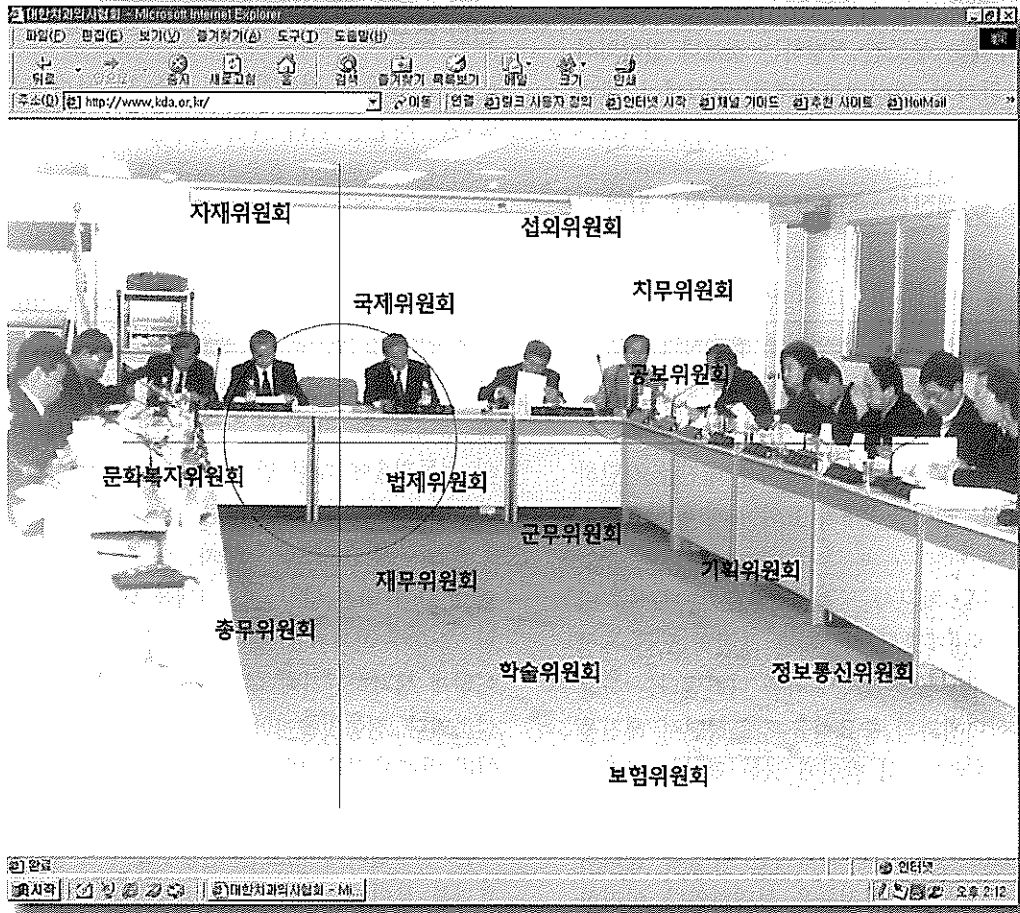


치협, 21세기 마스터 플랜을 열다



비전이 없는 곳에는 희망이 없다. 치협은 집행부가 바뀌기 전부터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세워 왔으며 장기간 위원회별 토의를 걸쳤었다. 각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의 21세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치협의 21세기 비전은 무엇인가? 치협의 각 위원회별 21세기 마스터 플랜을 살펴본다.

총무위원회

- 위원장: 김순상
- 치과의사 연수원 건립
- 사무처 기능강화

총무위원회에서는 치과의사 연수원 건립과 사무처 기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치과의사 연수원을 건립하여 치과의사 연수회, 보수교육 개최 및 각종 회의 등을 유치하고 동 연수원에 치과계의 변천사를 한 곳에 모아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치과박

물관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 회관을 증축하거나 회관 주위의 부지를 구입하고 건립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세부 건립계획은 물론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처의 기능면에서는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기획관리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적정인원을 배치, 기능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기획관리실의 면모를 갖추도록 할 것이다. 또한 사무처 직제를 평가, 개편하도록 한다.

치무위원회

- 위원장: 조영수
- 공공구강보건 강화
- 사회적 위상 제고
- 사회참여 및 사회봉사 강화
- 업무능력 강화

중심이 되는 기본방향은 통일시대 한국치과의료체계를 위한 능력과 내실을 확립하는 것이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공공구강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시도 구강보건계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보건(지)소의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업무 모형을 대도시, 중소도시, 전원지역에 따라 특성에 맞게 개발하며 수돗물 불화사업,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구강건강진단사업을 체계화, 내실화한다.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에서 개최하는 정책관련회의에 '치과계 대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내부 정책개발기능을 강화하여 치밀하게 대처한다. 국립치대병원의 독립법인화를 관철하고 치과의료인력에 관한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치과대학 신·증설 및 치과의료인력 수급문제에 대처한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전문

가를 발굴, 육성한다.

사회참여 및 사회봉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용역결과를 총괄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고 남북 치의학 교류, 북한돕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실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치과진료 지원 사업, 노인구강보건사업(무의탁 노인, 거동불능 독거노인, 시설 수용노인 대상 구강검진, 이닦아드리기, 틀니사업),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개발(종교, 시민단체, 장애인단체 및 언론기관과 공동으로)을 통해 대국민사업을 활성화한다. 시민단체에 적극 가입, 참여하고 제3세계 치과대학 유학생을 유치하고 치과대학을 지원하며 치과의사를 파견하는 것들도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이다.

21세기 마스터 플랜 중 마지막으로 업무능력 강화를 들 수 있다. 직무분석을 통해 임원업무를 평가하고 조정한다. 회원 중심의 업무를 처리한다는 원칙하에 정책개발, 시민사회단체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중복업무를 조정하고 대행정부관련 긴밀한 업무협조관계를 정착시킨다. 사무처직원의 업무를 전문화하고 능력 개발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을 일상화하는 것 등을 통해 업무능력의 향상을 기한다.

법제위원회

- 위원장: 장계봉
- 치과의료관계법령의 구강보건 위상 확립
- 미래지향적인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
-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 연구

본위원회의 21세기 마스터플랜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치과의료관계법령의 구강보건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지향적인 정관 및 제규정을 제·개정하며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연구한다.

치과의료관계법령의 구강보건 위상 확립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존 법체제의 구강보건제도관련 불합리요소의 개선 ▲현행 중속적 법률체제내에서도 상대적 치·의약 분리체제의 필요 ▲이해직종간 아전인수식 유권해석에 따른 집단갈등과 집단이기 횡포 방지 ▲치과의사 역할과 기능에 합당한 자격과 면허조항 별도필요 ▲치과

의료관계법령에서의 구강보건관련 위상 확립 필요 ▲ 의료인 종별에 따른 업무범위가 명시되지 않아 의료행위에 대한 혼란 초래 ▲OECD 가입 및 WTO 체제로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IMF로 열악해져 가는 의료환경 등으로 경영위기 위험수준-경쟁력 회복을 위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 요망 ▲의료인 단체의 전문성·자율성 보장 미비-대국민 및 대회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취약함으로 이를 보강

미래지향적인 정관 및 제규정 제·개정을 위해서는 현행 정관 및 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별위원회로 상시 정관 및 제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연구하며 유관단체 및 각종단체 규정집을 비교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치과의료분쟁에 대한 대처방안도 연구중에 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치과의사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에 많은 회원이 가입하여 현재 실시중에 있으므로 장·단

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속적인 계약 체결을 추진한다. 치과의사 연금보험 가입회원에 대하여 협회 보상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정부당국에서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나, 치과 의료분야는 다른 의과분야와 비교해 볼 때 민원사안의 빈도 및 피해정도가 많지 않으므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추진할 경우에는 치과의료분야는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주관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치과의료 민원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협회 차원에서 의료상담소를 설치, 민원인에게 치과의료의 특수성 등을 설명,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전문적인 문제는 관련학회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의료분쟁대책위원회 및 의료보상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한다.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 남·북한 치의학 학술교류 추진
- 치과전문의제도 조기시행 및 자격시험 실행위원회 구성
- 치과의사국가시험 개선연구(유학생 대책 등을 위한)
- 회원보수교육 전문화

학술위원회에서는 남·북한 치의학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치과전문의제도를 조기시행하며 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과의사국가시험을 개선하고 연구한다. 또한 회원보수교육을 전문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이 필요한 세계화시대와 더불어 한반도 통일에 대비하고 방북기회와 민간단체들의 북한 접촉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 남·북한 치의학 학술교류 추진은 분단으로 인한 그동안의 공백기간을 어느정도 해소하고 남북 상호간에 보충,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사회 및 민간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참여 ▲각종 사회복지사업에 주도적 참여 ▲그 동안 교류가 있었던 사회단체나 제3국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지속적 접촉시도 ▲월남 의료관계인들과의 간담회 개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연구 ▲

학술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 조성 ▲우리나라 또는 제3국에서 학술교류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치과전문의제도 조기시행 및 자격시험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전문과목별 임상치의학 연구전문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각과에 대한 연구다양성을 확대하며 치과의료인의 질적수준을 고양시키고 전문의 수련교육을 위한 교육투자증대를 유도한다.

치과의사국가시험을 개선하여 국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실성 있게 각 대학의 교육평준화와 이수정도, 임상적용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개선한다.

보수교육과 관련, 현재 각 보수교육기관에서 방만하게 개최되고 있는 회원보수교육을 보다 실질적이면서 치과의료행위의 전문성과 연관성을 키우고 회원 개개인의 평생교육을 통한 치과질환의 다원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보수교육 강연연계뱅크제 실시 ▲보수교육기관 선정기준 및 강사자격에 대한 규정 제정 ▲협회 보수교육 필수과목 매년선정 ▲매년 특별연제를 중앙회 보수교육차원에서 지방순회강연 등 실시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에 대한 적절한 선정 ▲미이수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보수교육기관에 대한 실사를 실시한다.

국제위원회

■ 위원장 : 조행작

- 국제 치과회의의 국내개최 추진 연구
- 국제적 학술교류 및 Expo Trade 개최 방안 연구
- 대한치과 의사협회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연구
- 재외동포치과 의사 유대 강화 연구

국제위원회에서는 ▲국제치과회의의 국내개최 추진 연구 ▲국제적 학술교류 및 Expo Trade 개최 방안 연구 ▲치협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가경쟁력 강화 연구 ▲재외동포치과 의사 유대 강화 연구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제치과회의의 국내개최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회의에 다수

회원이 참여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며 국제회의에 대한 전문 요원을 양성한다.

국제적 학술교류 및 Expo Trade 개최를 위해 아·태지역 치과협회간, 세계치과 의사연맹 회원국간의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치협 단독으로 국제적 치과기자재전시회 등을 개최한다.

치협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치과 의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WTO, UR 및 GR 협정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외국 치과 의료의 국내유입에 원만히 대처하고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치과경영 및 의료개선 방안 마련을 위하여 의료개선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세계치과 의사연맹(FDI) 및 아·태치과 의사연맹(APDF) 등 국제기구에 회장 및 상임이사 등 주요 임

원진과 각 위원회에 많은 한국 치과 의사의 진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세계치과 의사연맹 및 국제학회 등에 국내 치과 의사의 많은 회원 가입을 유도하여 국제적 치과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치과 학술대회에 국내 치과 의사가 학술강연 연자로 추천될 수 있도록 국내 학술관련 논문중 주요논문은 영어로 제작, 각국에 배포한다.

이외에도 국내 학술행사 등 대규모 행사에 재외한인치과 의사를 초청하고 재외한인치과 의사에게 협회지, 치의신보 등 각종 간행물을 배포하며 재외한인치과 의사의 소식을 교류해 재외동포치과 의사와의 유대를 강화한다.



국제위원회에서는 지난 97년에 FDI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치과계의 발전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렸다.

재무위원회

■ 위원장 : 김동기

- 회비 및 제부담금의 효율적인 수납

재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회비관련이다. 마스터플랜으로서 회비 및 제부담금의 효율적인 수납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곧 협회의 원활한 회무운영을 꾀하며 또한 치과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관련한 세무관계의 업무관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각 지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매월 회비송금 의뢰 및 납부자료를 접수하고 각 위원회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해 월별, 분기별로 분석 및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회원의 공평납세 및 세제의 합리적 조정연구와 대내외적 해결책을 강구한다.

공보위원회

■위원장: 김지학

- 대국민홍보기능 강화
- 대의원 홍보기능 강화
- 새로운 홍보 방안 마련

공보위원회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대 메스컴을 적극 활용하며 기존 홍보정책을 개선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원활한 활동을 위한 조직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각종 자료 구비와 함께 데이터베이스화하며 대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해 메스컴을 적극 활용한다. 각 언론계 종사자들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에게 치과에 대한 인식이 각인될 수 있도록 활동의 초점을 맞추는 작업을 선행한다. 또 언론을 이용한 간접적인 홍보 이외에도 치과와 관련된 아이템들을 개발해 국민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멘투멘식의 홍보활동 전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각 활동의 내용과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새로운 홍보방안을 준비하는 연구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대외적인 홍보 못지 않게 대의원 홍보도 중요하다. 다양해진 회원의 구성분포를 감안할 때 과거와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방법이 필요한데 특히 전체회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젊은 회원의 바람과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해 치협이 기본정책 수행시 많은 부분이 고려되고 활용돼야 한다. 또한 각종 현안이나 정책의 수행과정 및 전개방향에 대하여 기관지 치의신보 등 여러 방안을 동원해 알리도록 한다.

치과의사의 대사회적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향후 홍보활동의 기본 한축을 소외계층에 대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전개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각 유관단체 및 업체들의 협조를 구하는 등 공동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치과의사의 대 사회역할 수행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공보위원회에서는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발행하여 치과의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치의신보는 작년 7월에 1000호 발간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군무위원회

■위원장: 김판식

- 공중보건치과의사제도 개선방안

군무위원회에서는 공중보건치과의사제도 개선을 위해 현행 진료중심 업무에서 예방 및 교육사업을 통한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치료의료에서 예방의료로의 방향전환에 맞도록 보건

의료정책을 개선하고 기존 공중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으로 치과공중보건의료기능을 창출하며 해당 지역 주민에게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현재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의 배치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적합하게 개정한다.

자재위원회

■위원장: 우종운

- 치과기자재 국산화 사업 연구
- 치과관련 금융기관 이용시 사고에 따른 치과신용협동조합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 치과용 기자재 규격의 다품종화 및 관련기관의 규격과 통일화 방안 연구

자재위원회의 마스터플랜은 치과용 의약품 및 기자재를

국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치과 개원시 개원자금 부족이나 치과용기자재 구입으로 인한 금융기관 및 리스업체 이용시 일어나는 금융사고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치과신용협동조합 이용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또한 현재 21편까지 제정돼 있는 치과기자재 규격에 대해 선진 외국 및 정부 관련기관, 치과대학, 치재업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으로 통일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해마다 꾸준히 규격을 확대시키고자 한다.

보험위원회

■위원장: 현기용

- 의료보험제도 개편
- 의료보험제도 개선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2000년 7월부터 의료보험 완전통합에 따른 의료보험관련 국민건강보험령을 개선하고 의료보험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분류체계 개선에 적극 참여한다. 또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 및 의료

기관업무 표준화개발 연구에 적극참여하고 새로운 지불제도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의 운영에 적극대처한다. 의약품 및 진료용 재료대 실구입가 제도실시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치과진료용 재료대 국제가격 변동에 탄력적인 대처 및 별도의 재료제조비용 보상방안을 강구한다.

의료보험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의료보호, 의료보험수가 가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을 해소하며 장애인에 대한 급여범위 및 기준, 비용 등을 검토한다.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영식

- 정보통신분야 발전
- 협회의 행정체계 전산화 및 조직 체계화



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치과계의 정보통신 분야를 발전시키고 협회의 행정체계 전산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써 지난 3월 협회 및 각 지부 직원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는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여 협회 주관으로 치과계의 정보통신분야를 발전시키며 협회의 행정체계 전산화를 도모하고 조직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구체적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회원뿐만 아니라 대국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치의학의 발전 및 치과계의 위상을 높인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협회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부 및 분과학회 등의 홈페이지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지부 업무 전산화·표준화를 위하여 통합된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온라인망 구축-Windows N/T)하여 협회, 지부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시간 회원 관리를 실시하며 바코드를 이용하여 종합학술대회, 보수교육 등의 등록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2002년 아·태치과회의시에도 순조로운 등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사무처에 LAN을 구축하여 부서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운영되도록 하고, 임직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지부와의 화상회의, 유관단체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류 등 통신망을 이용하여 업무효율화를 높이도록 한다.

협회 회관내에 전산교육장을 설치하여 임직원 및 회원에게 수시로 각종 전산교육을 실시하고 학회지 논문 등 치과관련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회원들에게 정보검색 및 활용에 큰 도움을 주도록 한다.

기획위원회

■ 위원장 : 조영식

- 협회정책 중 · 장기계획 수립
-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독립법인화
- 의원보호사업

기획위원회의 마스터플랜은 협회정책 중 · 장기계획 수립, 구강보건의료연구원 독립법인화, 의원보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구강보건의료연구원의 독립법인화를 이룸으로써 정부 및 공공분야에 책정되어 있는 연구용역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적인 연구로 협회 및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 공정한 평가로 인한 대외 공신력 인정 및 연구원 위상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협회정책 중 · 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개발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민간 및 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원보호사업을 위해 대국민, 대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시민단체, 관계 단체 등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대국민을 상대로 치과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섭외위원회

■ 위원장 : 김세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제도 개선
-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대책 마련
- 대외섭외업무

섭외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제도를 개선해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며 대외섭외업무를 수행한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진료 단일수가 제도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고 의료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통계산출하여 비교해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준비한다. 진료비 지불제도 및 청구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참여한다.

의약분업실시에 따라 의약분업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올바른 의약분업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며 치과계의 의약분업 실시시 미칠 영향에 대해 강구한다.

각종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대외섭외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민간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지도치과의사 업무를 개발하고 유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문화복지위원회

■ 위원장 : 김진

- 환경 관련 문제 개선
- 21세기 치과이미지 부각

여성위원회에서는 환경관련 문제를 개선하고 치과 이미지를 부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환경관련교육 및 위원을 보강하고 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세부 사항으로서 환경관련문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진료실의 환경을 개선하며 환경개선에 대한 홍보를 한다.

21세기 치과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소비자보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원의 발생소지를 최소화 시키며 국민들의 치과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단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치과교육책자를 발간하며 초·중·고 교과서의 내용을 개선한다.